

Submission No.: KRCA-9108

Session Title: KORDS Report/Dialysis Center Accreditation

Date & Time, Place: April 27 (Thu), 15:00 - 17:00, Room 6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보고

Young-Ki Lee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Korea, Republic of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자가관리의 필요성이 크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복막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 사업목적은 재택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총 83개 기관(1차 54개, 2차 29개 기관 선정)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콩팥병 5기 환자로, 서비스 제공 인력은 시범사업 기관에 소속된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이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수가 항목은 교육상담 I(IB510, IB511), 교육상담 II(IB520), 환자관리료(IB530) 3가지이며, 복막투석 환자 이외에 투석 시작 전 환자에 대해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IB511)도 2회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교육상담 I 40,520원, 교육상담 II 25,530원, 환자관리료 27,380원이며, 교육상담료의 본인부담률은 10%이나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이 없다.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 현황을 보면, 83개 기관 중 71개 기관(85.5%)이 총 103,338건(기관당 약 1,455건)을 청구하였다. 수가 별 청구현황은 교육상담료 I 8,130건(7.9%) 교육상담료 II 22,589건(21.8%), 환자관리료 72,619건(70.3%)이었다. 교육상담료 I 중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은 1,111건(1.1%)이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심층 연구”(2021년 9월 ~ 2022년 3월)를 진행하여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택관리 서비스의 접근성, 의료이용, 비용 및 결과 등의 평가지표를 조사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환자 5인 이상 치료 기관 중 84.7% 참여),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서비스의 접근성도 매우 높았다(16개 시·도 참여). 환자들의 의료이용도 활발히 이루어져, 전체 복막투석 환자의 51.0%가 시범사업에 등록하였고 환자 1인당 연간 서비스 이용건수도 8.2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시범사업 등록환자는 미등록환자에 비해 응급실 내원 및 입원횟수, 전체 진료비가 낮았으며, 사망 위험도와 혈액투석 전환 비율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복막염 및 대사산증, 고칼륨혈증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96.7%로 나타났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심층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각 교육상담 별로 교육 흐름도와 이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목록을 작성하였다. 표준 교육자료는 학회 홈페이지의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자료실>에 올려 환자 교육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https://ksn.or.kr/bbs/?code=peritoneal1>).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는 못하였고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되었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효율적인 입원환자 적용 확대, 보험수가 및 산정기준 현실화, 교육상담료 횟수 제한 보완, 심평원 점검서식 입력 시스템 간편화,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 분리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은 현재 2회까지만 시행이 가능한데 평생해야 하는 투석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부족하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하루 빨리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재택관리의 기회가 주어지야 한다. 본 사업으로의 전환은 복막투석 환자들의 삶의 질과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사회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